

## 공동주택 거주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실내코디네이션 시행특성 분석

### Analysis on the Characteristics of Interior Coordination Execution by Apartment Residents in Accordance with Lifestyles

김지은\*  
Kim, Ji-Eun

한정원\*\*  
Han, Jeong-Won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termine the characteristics of interior coordination in accordance with lifestyles to provide better interior conditions for house dwellers who have many different preferences and needs. For this purpose, this research examined the lifestyles of house dwellers, and their experiences on interior coordination, needs and preferences of dweller groups according to their lifestyles. As the methods of the study, both literature research and empirical survey were conducted. The findings of the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The factor analysis shows that there are five main factors significantly affecting the lifestyles of apartment residents, and the lifestyles of residents were largely classified into four groups. G1 group is characterized by 'demand for luxuriousness' and 'pursuit for beauty', and G2 group has tendency of 'information orientation' and 'pursuit for self-expression', G3 group shows strong tendency for 'pursuit for practicality' and G4 group is characterized by 'pursuit for self-expression' and 'pursuit for beauty'. The four groups showed distinct characteristics in their experiences, needs and preferences of interior coordination. G1 group can be named as 'the style of well-being and luxuriousness', and they are very positive in the interior climate change and prefer artistic items and luxurious atmosphere. G2 group, which can be named as 'the style of expression', tend to have their house interior-coordinated in order to follow fashion trends or express their personality. G3 group is named as 'the style of practicality' and they consider convenience, practicality, and functionality. The last group, G4 can be named as 'the style of personality', and they have much interest in expressing their personality or following trendy fashions.

Keywords : Interior Coordination Experience, Interior Coordination Elements, Lifestyle, Residential Design

주요어 : 실내코디네이션 경험, 실내코디네이션 요소, 라이프스타일, 주거공간디자인

## I. 서론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실내코디네이션은 넓은 의미에서의 실내디자인에 포함되는 개념으로써, 건축공간과 거주자들을 연결해주는 실내의 다양한 물리적 요소들을 디자인 컨셉을 바탕으로 조화롭게 연출하는 작업이다. 실내요소들의 조화로운 코디네이션을 통해 거주자들은 자신의 사회적·문화적 배경이나 스타일, 그리고 개성을 표현하며 심리적인 안정을

느끼게 되고, 이에 따라 공간의 기능적·미적 가치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과거에는 실내코디네이션이 벽지나 패브릭 등 일부 마감재와 수장재만을 대상으로 하는 표면적인 장식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실내디자인과 관련된 여러 의미와 혼용되어 모호하게 사용되고 있어 그 범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확립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조화로운 실내공간이란 일부 마감재와 주요 가구만을 선택하는 것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으며, 공간의 구성 컨셉에서부터 색채, 조명, 가구, 마감재,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품과 액세서리의 디스플레이까지 고려하여 디자인 되어야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실내코디네이션은 고급 주택이나 공동주택의 분양을 위한 모델하우스에만 적용하는 전문적인 작업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고, 거주자가 직접 자신이 원하는 실내코디네이션에 대한 정보를 얻거나 자신의 주택에 시행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정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개인의 성향과 기호가 다원화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실내공간을 구성하는 매우 세

\*정회원(주거자), (주)다원디자인, 이학석사

\*\*정회원(교신저자), 부산대학교 주거환경학과 및 노인생활환경연구소 조교수, 이학박사

**Corresponding Author:** Jeong-Won Han, Dept. of Housing and Interior Design, Pusan National University, Busandaehak-ro 63beon-gil, Geumjeong-gu, Busan 609-735, Korea  
E-mail: jwhan@pusan.ac.kr

이 논문은 2011년도 한국실내디자인학회의 춘계학술발표대회에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연구임

부적인요소들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주자의 생활에 맞추어진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실내코디네이션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으며, 전체적인 공간디자인의 과정에서 거주자의 다양한 요구와 미적, 기능적, 심리적 목적까지 조절할 수 있는 전문가로서 실내코디네이터의 중요성도 증대되고 있다.

2005년 기준으로 전체 주택비율의 50% 이상을 차지하면서 현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거양식으로 자리잡은 아파트는 1950년대 말 도입된 이후 도시화에 따른 급격한 인구 증가 등으로 주택의 양적인 부족을 해결하고자 대량공급 위주의 획일적 방식으로 공급되어 왔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경제적 성장과 더불어 정보화 사회로의 기술적 진보, 교육수준의 향상, 여성의 사회활동 확대 및 자기발전에 대한 관심 증대 등으로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만들어내는 터전이 되는 주거공간에 대해서도 다양한 태도와 요구를 보이게 되었다.<sup>1)</sup> 그에 따라 거주자의 감성 충족과 다양화되는 라이프스타일이 반영된 공간의 계획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실내코디네이션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개념 확립이나 깊이 있는 연구는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으며, 일부 모델하우스를 대상으로 하거나 부분적 요소에 대한 연구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양해지고 있는 거주자들의 선호와 요구에 맞춰 보다 쾌적하고 조화로운 실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라이프스타일이 고려된 거주자들의 실내코디네이션 시행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요인들로 구성된 거주자들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을 도출하고, 그에 따른 실내코디네이션 시행경험과 방법을 분석하여 그 특성을 이해하고자 하였으며, 이는 추후 주거공간 디자인에서 소비자의 다양한 선호와 요구를 충족시키고 거주자의 라이프스타일에 적합한 실내코디네이션을 제안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2. 연구방법 및 연구내용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실증조사연구로 진행하였다. 먼저 관련문헌을 통해 실내코디네이션의 개념을 파악하고 현재 실내코디네이션의 변화와 연구경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라이프스타일의 개념 및 측정도구의 구성방법을 고찰하고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을 토대로 본 연구에 적합하게 수정·보완하여 문항을 구성하였다. 실증조사연구는 부산광역시 내에 위치한 공동주택 거주자 중 30~50대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설문조사를 통해 실내코디네이션에 대한 경험과 요구를 조사하였다.

## II. 이론적 배경

### 1. 실내코디네이션의 개념

코디네이션의 사전적 의미는 ‘조화’ ‘조정’ ‘통일’의 의미로써 두 가지 이상의 사물을 조합하여 하나의 의미로 인식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이 용어는 현재 의상코디, 헤어코디 등 여러 분야에서 총체적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의미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2000년대 이전의 연구에서는 실내코디네이션의 개념이 인테리어 코디네이트, 실내장식, 데코레이션 등 다양한 용어로 표현되고 있다. Lee(1985)는 인간생활의 요구에 적합하고 완전한 주거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물리적 구조체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의 쾌적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공간과 연결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실내장식물을 필요로 하게 된다고 하면서 실내장식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Park and Shin(1994)의 연구에서는 데코레이터가 완성된 건축물에 벽지, 직물, 가구, 장식물 등으로 치장하는 역할을 하는 보다 시각적이고 장식적인 문제를 맡고 있는 사람들을 일컫는다고 하면서 코디네이션을 장식적인 개념으로 보았다.

2000년대 이후 실내코디네이션에 대한 본격적인 개념이 나타나고 이에 대한 시각이 점차 변화하고 있는데, Park(2003)은 코디네이션의 실질적 범위를 건축 이전의 컨셉 작업에서부터 건축, 인테리어에 이어 아주 작은 소품의 선정 및 배치까지 마감재와 색상을 포함한 모든 디자인을 조화시키는 작업이라고 광범위하게 정의하였다. Park(2005)은 구조에 변함없이 공간의 색채, 형태, 질감, 가구, 조명의 선택 그리고 그림, 소품과 같은 요소들을 의식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고무적이고 쾌적한 환경을 창조해 내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Yoo and Lee(2011)는 공간의 색채, 형태, 텍스처는 물론 가구, 조명의 선택 그리고 그림, 소품과 같은 오브제 요소들을 사용자의 요구와 코디네이터의 의도에 따라 의식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쾌적한 인간 환경을 창조해 낼 수 있다고 하였다. Kim(2009)은 실내공간의 설계를 실내 Design(실내공간 레이아웃 설계), 실내 Element(설비, 가구, 조명 등 실내요소를 설계하는 일), 실내 Coordination의 세 가지 분야로 분류하고 실내코디네이션은 공간을 이해하며, 마감재를 고려하여 동선을 유지하며 가구, 소품, 커튼, 소품을 활용하여 디자인적 요소를 정리하고 실내 Design과 실내 Element 두 분야를 마무리 해주는 단계라고 정의하였다.

종합해보면 실내코디네이션은 단순한 장식의 개념이 아니라, 미적인 부분과 기능적인 부분을 적절히 조화시켜 공간을 표현하는 작업이다. 이를 위해 거주자들이 원하는 컨셉에 따라 각 공간별로 요구되는 색채, 재료, 조명, 가구, 패브릭, 소품 등의 구성요소들을 이용하여 조정과 조화를 통해 미적, 기능적 목적에 맞는 다양한 느낌을 연출함으로써, 거주자의 생활에 적합한 쾌적한 환경과 개성을 나타낼 수 있는 환경을 창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sup>2)</sup>

1) Kim, H. (2008). A study on the space using behavior of the kitchen according to apartment residents' lifestyle. Master's thesis, Pusan National University, Busan. p.2

2. 실내코디네이션의 요소

실내코디네이션 관련 선행연구에서 정의한 실내코디네이션의 요소를 살펴보면 연구의 대상과 연구자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가장 많이 다루는 요소는 색채, 가구, 조명, 패브릭, 소품 등이며, 최근에는 그 범위를 보다 확장시켜 평면구성이나 공간의 형태, 동선을 포함시키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Table 1>.

Table 1. Interior Coordination Elements Referred from Previous Researches

Researcher	Interior coordination elements
Baek, J. et al. (2003)	style, color, furniture, lighting, fabric, finish material, accessories
Lee, J. (2003)	lighting, color, material (furniture, wallpaper, floor finish), accessories plan (curtain, fabric, wall decoration & decorative objects, plant display)
Park, H. (2003)	concept, finish material (color & texture), lighting, furniture, carpet, curtain, art work, accessories
Park, W. (2005)	layout, facility, form, color, material, lighting, fabric, furniture
Kang, M. (2008)	floor plan (using movable furniture), finish material & color, lighting, furniture, fabric, carpet, interior objet (art work, flower deco., etc.)
Kim, H. (2008)	color, lighting, furniture, fabric, table ware, flower deco., accessories
Kim, K. (2008)	floor plan, color, material-texture, lighting, furniture, picture, accessories
Shin, S. (2008)	basic elements (wall, floor, ceiling), lighting, color, furniture, fabric, table setting, flower
Kim, S. (2009)	floor plan, installation, color, lighting, furniture plan, objet (rug, accessories, art work), fabric plan
Park, M. (2009)	color, wallpaper, furniture, fabric
Park, M. (2009)	form, furniture, color, lighting, fabric, art work, capet
Baek, J. (2010)	color, lighting, furniture, fabric (curtain, sofa cover, cushion, beddings), carpet (rug), accessories
Lee, M. (2010)	color, lighting, furniture, fabric, art work, accessories
Oh, H. et al. (2010)	concept, visual design elements, space design elements, table setting, food styling
Yoo, Y. et al. (2011)	color, material, texture

본 연구에서는 선행 문헌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요소들을 중심으로 공간계획적 요소인 평면계획, 실내디자인적 요소라 할 수 있는 색채, 조명, 재료, 그리고 장식적 요소인 가구, 소품, 패브릭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sup>3)</sup>

2) Kim, J. & Han, J. (2011). Analysis on the Research Trend in Interior Coordination. KIID Spring Conference Proceedings, 13(1), p. 218

3) 설문조사시 응답자들의 용어에 대한 혼동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가 설명을 포함하여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① 색채(실내공간의 전반적인 색채), ② 조명(조명이 나타내는 전반적인 분위기), ③ 재료(벽, 천정, 바닥 등의 마감재료), ④ 가구(소파, 테이블 장식장 등 움직일 수 있는 가구), ⑤ 패브릭(커튼, 카펫, 침구류 등), ⑥ 소품(오브제, 아트웍, 플라워데코, 테이블웨어 등), ⑦ 평면의 구조변경

3. 라이프스타일과 실내코디네이션

라이프스타일은 연구 분야와 접근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는데, 최근 공간의 계획과 디자인 분야에 있어서도 개인 간의 뚜렷한 특성과 행동을 이해하고 예측하는 변수로 여러 연구에 적용되고 있다.

Hong(2009)은 라이프스타일 연구의 특징은 개개인이 아닌 소규모 집단의 생활방식을 연구하며 소비자 집단을 실제적으로 묘사하므로 이용가치가 높다고 하였으며, Park (2001)은 디자인 분야에서 라이프스타일은 디자인 선호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소비자들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사용되어 왔다고 하였다. 이처럼 라이프스타일은 소비자로서 개인의 특성과 성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체계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Lee(2003)에 의하면 인간의 생활양식과 자연적, 사회적, 물리적 환경, 특히 주거공간의 물리적 환경은 서로 상호 작용 하므로 결국, 라이프스타일은 주거의 구매, 이동, 선호에 의한 변형, 주거공간의 변화 등 주거에 관한 전반적인 요구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급격하게 변화하고 다원화되는 현대 사회에서 단순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이나 사회경제적 특성만으로는 다양화되어가는 거주자들의 요구와 선호를 만족시키기에는 충분하지 않으므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개개인의 가치관이나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보다 폭넓은 연구가 필요하다. 개인적인 취향과 요구 및 선호를 세부적으로 표현해야 하는 실내코디네이션에 있어서도 거주자의 특성 파악을 위해 라이프스타일을 이해하고 다양한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라이프스타일 분석방법은 접근방법의 차원에 따라 거시적 접근과 미시적 접근방법으로 나눌 수 있고, 분석 자료의 성격에 따라 객관적 데이터와 주관적 데이터로 분류할 수 있다. 또한 측정도구의 구성에 따라 인간행동의 전반적인 유형을 파악하기 위한 일반적 라이프스타일(General life style) 접근방법과, 인간생활의 특정상황을 파악하거나 특정제품과 관련된 라이프스타일을 파악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특정 라이프스타일(Specific life style) 접근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sup>4)</sup> 미시적 접근방법은 라이프스타일의 이해를 통해 사회를 세분화 해보고자 하는 것이며, 주로 주관적인 자료를 통한 심리측정의 기법을 이용하여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생활욕구유형을 측정하고 분석함으로써 특히 소비자연구에서 많이 이용된다. 대표적인 조사들은 AIO분석, 싸이코그래픽스(Psychographics) 및 가치분석 등이 있다(Chae, 1992).

AIO(Activity, Interest, Opinion)분석법은 가장 널리 이용되는 라이프스타일 측정 방법으로 일상의 행동(Activity), 주변사물에 대한 관심(Interest), 및 사회적, 개인적 문제들

4) Hong, W. (2009). A study on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lifestyle according to the housing preference.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p. 13

에 대한 의견(Opinion)이라고 하는 3가지 차원에서 파악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미시적 접근방법의 AIO 분석법과 함께 행동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 성격, 가치관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문항을 재구성하여 라이프스타일 유형을 세분화해 보고자 한다.

### III. 조사방법 및 내용

#### 1. 조사도구의 구성

실증조사를 위한 조사도구는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과 라이프스타일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 그리고 거주자들의 실내코디네이션 시행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라이프스타일을 조사하기 위한 도구를 작성하기 위해 관련 선행연구(Lee et al., 1993; Park et al., 1994; Hong, 2009)에서 사용한 문항들 중 각 연구에서의 요인분석 결과 요인부하치가 .40 이상인 문항들을 먼저 추출하였고, 이를 본 연구에 적합하게 수정·보완하여 총 32문항을 선별하였다. 예비조사 및 기초분석을 통해 타당성을 검증하여 최종 24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이를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실내코디네이션 시행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과거 시행했던 실내코디네이션에 대한 경험과 과정별 시행방법에 대한 문항을 구성하였는데, 경험에 대한 문항으로는 현재의 주택에서 가장 큰 범위로 실내코디네이션을 시행했던 시기, 교체 요소, 가장 신경썼던 요소를 파악하고자 하였고, 시행방법은 컨셉 및 계획, 제품선택, 설치 단계로 디자인 프로세스를 구분하여 각 단계에서의 시행방법(본인이 직접 하는 방법, 전문 업체에 의뢰하는 방법)을 살펴보았다. 조사도구의 구성과 내용은 <Table 2>와 같다.

Table 2. Organization of Questionnaire

Categories	Contents	
General characteristics	Household characteristics	Age Household size Monthly income
	Residence characteristics	Period of residency Residence ownership House size
Lifestyle	24 questions to analyze lifestyle	
Characteristics of interior coordination execution	Experience	Time of recent execution Changed elements The most considered elements
	Execution methods	Execution methods in accordance with lifestyles Method of product selection

#### 2. 조사 및 분석방법

설문조사는 부산시내 전 지역의 아파트 거주자 중 30~50대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표본의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대단위 아파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부산시를 세 지역으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sup>5)</sup>

각 지역에서 접근이 가능한 아파트 단지들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원들이 2011년 9월 15일부터 2011년 9월 26일 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설문지는 각각 120, 120, 110부씩 총 350부를 배포하여 92%인 322부가 회수되었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불충분한 것들을 제외하고 284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통계분석 프로그램 SPSS WIN 12.0을 이용하였으며, 빈도분석, 교차분석, 요인분석, 군집분석 등을 통해 분석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 가구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Table 3>와 같이 나타나는데 먼저 가구의 특성을 보면, 주부의 연령은 평균 43.3세(SD=7.9)로 30대가 38.7%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35.5%, 50대가 25.9%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구성원은 평균 3.7명(SD=0.9)으로 4인이 45.1%, 3인 이하가 40.1%로 나타나 4인 이하 핵가족 구성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월평균 소득은 400-500만원 미만이 24.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00-400만원 미만이 21.5%, 600만원 이상이 19.4%, 300만원 미만이 19.4%, 500-600만원 미만이 15.1% 순으로 나타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3,713,476원(2011년 2/4분기)<sup>6)</sup>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400만원 이상이 59.1%로 전반적으로 소득이 높은 집단으로 파악되었다.

거주특성을 살펴보면 현 아파트 거주기간은 평균 5.2년(SD=4.0)으로 나타났으며, 2년 이상 5년 미만이 35.6%, 5년 이상 10년 미만이 29.2%, 2년 미만이 19.0%, 10년 이상이 16.2%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가 비율은 80.6%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고, 주택규모는 30평형대가 44.4%로 가장 높았으며, 40평형대 이상이 33.1%, 20평형대 22.5%로 나타났다.

#### 2. 라이프스타일 유형의 구분

조사대상 가구의 라이프스타일을 파악하기 위해 구성된 24개의 문항에 대해 일차로 문항분석을 시행한 결과, 90% 이상의 가구가 동일하게 긍정적 또는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 문항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차로 응답의 신뢰성 검

5) Park, S.(2001). A study on the housing needs model for the apartment unit plan. Doctoral dissert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Busan. p. 32-33.

1. 동해안권: 최근 신도시 개발로 아파트 단지가 집중적으로 건설된 해운대구, 남구, 수영구를 포함하는 지역  
 2. 중심권 및 북부내륙권: 기계발전 주거지역으로 최근 아파트 단지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부산진구를 중심으로, 금정구, 동래구, 연제구를 포함하는 지역  
 3. 서부내륙 및 남해안권: 현재 주거지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북구 화명지역을 중심으로 사상구, 사하구 및 서구, 영도구를 포함하는 지역  
 6) 2011 2/4분기 도시근로자가구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통계청) 전체 평균: 3,713,476원

Table 3.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Categories	Contents	f	%
Age	30-39 years	109	38.7
	40-49 years	100	35.5
	More than 50 years	73	25.9
	total	282*	100.0
	mean	43.3 years	
Household characteristics	Household size		
	Less than 3 persons	114	40.1
	4 persons	128	45.1
	More than 5 persons	42	14.8
	total	284	100.0
mean	3.7 persons		
Monthly income	Less than 3 million won	55	19.4
	3-4 million won	61	21.5
	4-5 million won	70	24.6
	5-6 million won	43	15.1
	More than 6 million won	55	19.4
	total	284	100.0
Residence characteristics	Period of residency		
	Less than 2 years	54	19.0
	2-5 years	101	35.6
	5-10 years	83	29.2
	More than 10 years	46	16.2
	total	284	100.0
mean	5.2 years		
Residence ownership	Owner	229	80.6
	Non-owner	55	19.4
total	284	100.0	
House size**	20pys	64	22.5
	30pys	126	44.4
	Larger than 40py	94	33.1
	total	284	100.0

\*number excepting non-response

\*\*20 pys: between 66-99 m<sup>2</sup>, 30 pys: between 99-132 m<sup>2</sup>, 40 py: approx. 132 m<sup>2</sup>

증을 위해 유사하게 중복되는 각 문항들 간의 상관계수가 0.5 이상으로 나타나는 문항을 파악하였으나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총 24문항으로 구성된 문항에 대해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추출방법은 주성분분석(Principle component)법을 사용하였고, 요인회전방식은 직각회전방법(Orthogonal method) 중 VARIMAX 방식을 사용하였다.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아이겐 값 1.0 이상의 요인수가 7개로 나타났으나 Scree test 결과 5개 요인으로 설명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적재값이 0.3 이하인 5개 항목을 제외한 후 19개 문항을 다시 요인분석하여 모두 5개의 라이프스타일 구성요인을 추출하였다.

라이프스타일 구성요인을 살펴보면, 친환경을 중시하며 비용이 들더라도 브랜드 제품 또는 가치 있는 예술품을 추구하며 고급스러운 실내분위기를 중요시하는 ‘고급지향생활요인(11.7%)’, 그리고 실내코디네이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관심이 많은 ‘심미추구생활요인(11.5%)’, 실내코

디네이션 시행에 있어 실용적인 면보다 디자인이나 개성을 나타내는 것을 중요시하며 과시적 성향을 보이는 ‘자기표현추구생활요인(9.5%)’, 새로운 패션이나 유행을 빨리 받아들이고 자기개발을 위한 공부를 계속하며 인터넷 또는 정보 매체 이용도가 높은 ‘정보지향생활요인(9.9%)’, 유행이나 디자인을 추구하기보다는 실용성을 중요시하는 ‘실리추구생활요인(9.4%)’ 등이 나타났다<Table 4>.

라이프스타일을 구성차원으로 파악된 총 5개 구성요인의 요인점수를 이용하여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비계층적 K-평균 군집분석법<sup>7)</sup>을 사용하여 라이프스타일 구성요인의 최종 중심치와 군집별 표본수를 고려하였으며, 최종중심치의 차이가 크고 군집별 표본의 수가 고르게 분포되도록 하여 4개의 집단으로 유형화하였다. 각 유형의 특성은 라이프스타일 구성요인에 따른 기여점수와 구성요인 문항내용을 비교·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파악하였다.

G1유형은 ‘고급지향요인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긍정적 태도의 경향을 가지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실리추구요인에 대해서는 낮은 인식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실내분위기 변화와 실내코디네이션에 적극적이며 관심이 많고 예술품 및 고급스런 분위기를 선호한다. 또한 비용이 들더라도 친환경 재료, 건강식품, 자연식품을 이용하는 등 웰빙을 중시하는 성향을가지고 있다.

G2유형은 다른 유형과 비교해서 대부분 문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긍정적 태도의 경향을 가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집단의 특징을 설명하는 요인인 ‘정보지향요인과 ‘자기표현추구요인에서는 다른 유형에 비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인터넷 등을 통한 정보매체 활용도가 높은 편이며 유행에 관심이 많고 주택에 있어 편리함이나 실리적인 면보다는 보여주고 싶어하는 과시적 성향을 띠고 있다.

G3유형은 다른 유형들에 비해 전반적인 문항들에 대해 낮은 인식태도 경향을 가지고 있으며 ‘자기표현추구요인’의 경우에는 네 유형 중 가장 부정적인 인식태도를 나타내었고, 반대로 ‘실리추구요인’에 대해서는 높은 긍정적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고급스런 분위기나 유행, 미적 장식을 추구하기보다는 생활의 편리함이나 실리적인 생활을 추구한다.

G4유형은 ‘자기표현요인’과 ‘심미추구요인’에 대해 매우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되며 ‘실리추구요인’에 대해서도 긍정적이어서, 자신의 개성을 심미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성향이 많으면서도 실용성을 추구하는 집단으로 파악되었다. 자신의 취향에 맞지 않으면 유행하는

7) 비계층적 군집분석법은 군집화 속도가 빨라서 군집화할 대상이 다수인 경우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다. 비계층적 군집분석으로 K-평균 군집분석법이 가장 널리 쓰이고 있으며, 순차적으로 군집화 과정이 반복되기 때문에 순차적 군집분석법(sequential threshold method)이라고도 한다. K-평균 군집분석법은 변수를 군집화하기 보다 관측대상이나 회답자를 군집화하는데 많이 사용한다.

Table 4. Lifestyle Factors

Questions	Luxurious-ness	Pursuit for beauty	Self-expression	Information oriented	Pursuit for practicality
ls15 I buy healthy, natural, pollution-free foods even though those are expensive.	.73	.06	.05	.09	.15
ls21 I use eco-friendly interior materials even though those are expensive.	.69	.09	-.11	.34	.24
ls14 I don't trust non-branded products.	.67	.04	.18	-.21	-.14
ls16 I prefer high-quality and dignified atmosphere to comfortable atmosphere.	.56	.07	.32	-.03	-.04
ls10 I would buy artworks that harmonize with my house and are valuable even though those are expensive.	.52	.21	.18	.21	-.22
ls3 I have much interest in interior coordination information, and I think it is the most important to coordinate interior elements well.	.10	.71	.16	.28	.04
ls1 I try to match colors and materials of furniture, curtain, and wallpaper for the unity of interior atmosphere.	.13	.71	.04	.09	-.03
ls6 Characteristics of house and interiors are important to express resident's image.	.07	.67	-.08	.18	.10
ls7 I prefer flowers and natural elements to artificial things for interior decoration.	-.01	.48	.16	-.17	.32
ls11 It is more important to express personality than to provide comfortableness and function for the master area.	.00	.13	.78	.05	-.06
ls28 I choose furniture which is possessed by my surroundings even though it goes against with my taste.	.07	-.32	.61	.16	-.01
ls5 Color and style is more important than practicality when purchasing furniture.	.23	.24	.45	.06	-.04
ls20 I hope to decorate my house beautifully so that other people envy me.	.19	.24	.43	.16	.31
ls23 I always study for self-improvement.	.05	.23	.15	.70	-.05
ls22 I tend to accept new fashion and trends.	.19	.05	.26	.70	-.12
ls12 I tend to research on various informations including price and satisfaction level through internet when buying what I want.	-.04	.14	-.10	.58	.33
ls19 I consider the size and conditions of my house rather than design when purchasing furniture.	.09	.10	-.08	-.18	.67
ls18 I hope to live in a country house or a house with natural materials for my health.	.06	.22	.05	.20	.66
ls17 I tend to fix and reuse broken equipment and furniture.	-.09	-.08	-.03	.06	.65
Eigen value	3.8	2.1	1.4	1.2	1.2
Communality(%)	11.7	11.5	9.9	9.5	9.4
Cumulative variance(%)	11.6	23.1	33.1	42.6	52.1
KMO	0.761***				

스타일이라도 따르지 않는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G1유형은 웰빙고급형, G2유형은 표현형, G3유형은 실리형, G4유형은 개성형으로 각 군집에 대한 라이프스타일 유형을 명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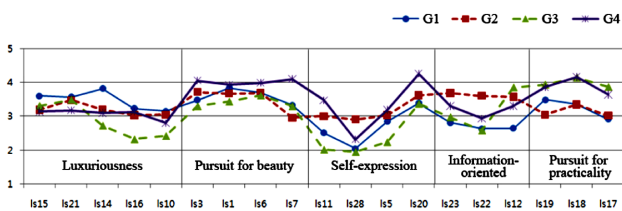


Figure 1. Mean of Each Question in Accordance with Lifestyle

3. 라이프스타일 유형별 실내코디네이션 특성

1) 실내코디네이션 시행 경험

먼저 최근에 현재의 주택에서 가장 큰 범위로 실내코디네이션을 시행하였던 시기를 살펴보면<Table 5>, G1유형의 경우 ‘5~6년전(29.2%)’의 응답이 높았고 G2유형에서는 ‘3~4년전(37.1%)’의 응답률이 높았다. G3유형은 ‘7년 이상(25.0%)’ 시행하지 않았다는 응답률이 높았으며, G4유형에서는 ‘1~2년전(25.7%)’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2년 이내에 시행한 비율이 G1유형은 26.4%, G2

유형은 37.1%, G3유형은 36.1%, G4유형은 35.7%로 G1유형의 경우 실내코디네이션의 시행주기가 다른 유형에 비해 비교적 긴 것으로 볼 수 있다.

Table 5. Time of Recent Interior Coordination Execution

Categories	G1	G2	G3	G4
Less than 1 year ago	8(11.1)	12(17.1)	10(13.9)	7(10.0)
1~2 years ago	11(15.3)	14(20.0)	16(22.2)	18(25.7)
3~4 years ago	16(22.2)	26(37.1)	17(23.6)	17(24.3)
5~6 years ago	21(29.2)	15(21.4)	11(15.3)	12(17.1)
More than 7 years ago	16(22.2)	3(4.3)	18(25.0)	16(22.9)
Total	72(100.0)	70(100.0)	72(100.0)	70(100.0)
$\chi^2=32.404***, df=12$				

f(%), \*p< .05 \*\*p< .01 \*\*\*p< .001

다음으로 실내코디네이션을 시행하였던 요소들의 종류를 파악해 본 결과<Table 6>, G1유형은 ‘가구(65.3%)’, ‘재료(58.3%)’, ‘색채(47.2%)’ 등의 순이었으며 G2유형도 ‘가구(57.1%)’, ‘재료(50.0%)’, ‘색채(41.4%)’ 등의 순이었다. G3유형은 ‘재료(55.6%)’, ‘가구(54.2%)’, ‘색채(50.0%)’의 순으로 나타났고 심미추구요인과 자기표현요인으로 특징지어지는 G4유형은 ‘가구(60.7%)’, ‘재료(50.0%)’, ‘패브릭(41.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재료’, ‘가구’의 요소 교체 비율이 높아 주부들의 입장에서 가장 쉽

게 접근할 수 있는 항목이 재료와 가구임을 파악할 수 있으며, 개성을 중시하는 G4유형의 경우 패브릭과 같은 구체적인 요소에도 타유형보다 좀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Table 6. Changed Elements in Interior Coordination

Categories	G1	G2	G3	G4
Color	34(47.2)	29(41.4)	36(50.0)	19(27.1)
Lighting	27(37.5)	25(35.7)	22(30.6)	12(17.1)
Materials	42(58.3)	35(50.0)	40(55.6)	35(50.0)
Furniture	47(65.3)	40(57.1)	39(54.2)	46(65.7)
Fabric	26(36.1)	24(34.3)	23(31.9)	29(41.4)
Accessories	15(20.8)	16(22.9)	12(16.7)	17(24.3)
Floor plan	14(19.4)	10(14.3)	15(20.8)	9(12.9)

f(%), Multiple answers

실내코디네이션 시행 시 가장 신경썼던 요소를 유형별로 살펴보면<Table 7>, G1유형의 경우 ‘재료(31.9%)’, ‘가구(29.2%)’, ‘색채(27.8%)’순이었으며 G2유형의 경우 ‘색채(35.7%)’, ‘가구(20.0%)’, ‘재료(18.6%)’, G3유형은 ‘재료(36.1%)’, ‘가구(25.0%)’, ‘색채(23.6%)’순이었고, G4유형의 경우 ‘가구(40.0%)’, ‘재료(22.9%)’, ‘색채(18.6%)’순으로 나타났다. 실용적 특성을 가진 G3유형은 재료에 대한 관심이 많으며, 과시적이고 표현적인 성향이 있는 G2유형은 색채 계획을 많이 고려하고 타 유형에 비해 조명이나 소품 등의 기타 항목에도 신경을 쓰는 것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개성표현 욕구가 강한 G4유형은 가구를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나 생활양식의 각 유형에 따라 고려하는 요소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Table 7. The Most Considered Element in Interior Coordination

Categories	G1	G2	G3	G4
Color	20(27.8)	25(35.7)	17(23.6)	13(18.6)
Materials	23(31.9)	13(18.6)	26(36.1)	16(22.9)
Furniture	21(29.2)	14(20.0)	18(25.0)	28(40.0)
Others	8(11.1)	18(25.7)	11(15.3)	13(18.6)
Total	72(100.0)	70(100.0)	72(100.0)	70(100.0)

$$\chi^2=19.168^*, df=9$$

f(%), \*p<.05 \*\*p<.01 \*\*\*p<.001

2) 실내코디네이션 과정별 시행방법

실내코디네이션을 시행하는 과정을 컨셉 및 계획, 제품선택, 설치 및 시공 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별로 본인이 직접 하였는지 전문업체에 의뢰하였는지에 대해 파악하였다. 유형별 차이 검증은 위해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으나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는 항목이 많지 않아 빈도와 백분율을 통해 각 유형에 따른 시행방법의 경향을 분석하였다.

G1유형은 컨셉 및 계획 단계에서 장식적요소인 ‘가구, 패브릭, 소품’은 ‘본인이 직접’의 응답률이 높았고, 실내구성요소인 ‘색채, 조명, 재료’와 건축계획적요소인 ‘평면의 구조변경’은 ‘전문업체에 의뢰’했다는 응답률이 높았

다. 제품선택 단계에서는 ‘색채, 가구, 패브릭, 소품’의 경우 ‘본인이 직접’이, ‘조명, 재료, 평면 구조변경’은 ‘전문업체에 의뢰’가 높게 나타났다. 설치 및 시공단계에서는 ‘소품’을 제외한 모든 요소에서 전문업체에 의뢰했다는 응답이 많았다<Table 8>.

Table 8. Execution Method of G1

Categories		Concept & Planning	Product Selection	Installation & Construction
Color	Self	17(48.6)	21(60.0)	5(14.3)
	Contractor	18(51.4)	14(40.0)	30(85.7)
	Total	35(100.0)	35(100.0)	35(100.0)
Lighting	Self	10(34.5)	14(48.3)	7(23.3)
	Contractor	19(65.5)	15(51.7)	23(76.7)
	Total	29(100.0)	29(100.0)	30(100.0)
Materials	Self	16(39.0)	19(46.3)	5(12.5)
	Contractor	25(61.0)	22(53.7)	35(87.5)
	Total	41(100.0)	41(100.0)	40(100.0)
Furniture	Self	42(89.4)	42(87.5)	21(43.8)
	Contractor	5(10.6)	6(12.5)	27(56.3)
	Total	47(100.0)	48(100.0)	48(100.0)
Fabric	Self	20(71.4)	19(67.9)	10(37.0)
	Contractor	8(28.6)	9(32.1)	17(63.0)
	Total	28(100.0)	28(100.0)	27(100.0)
Accessories	Self	11(73.3)	10(66.7)	8(53.3)
	Contractor	4(26.7)	5(33.3)	7(46.7)
	Total	15(100.0)	15(100.0)	15(100.0)
Floor plan	Self	4(25.0)	5(33.3)	1(6.3)
	Contractor	12(75.0)	10(66.7)	15(93.8)
	Total	16(100.0)	15(100.0)	16(100.0)

f(%)

G2유형의 경우 컨셉 및 계획단계에서는 G1유형과 마찬가지로 ‘가구, 패브릭, 소품’의 요소는 ‘본인이 직접’의 응답률이 높았고 ‘색채, 조명, 재료, 평면의 구조변경’은 ‘전문업체에 의뢰’했다는 응답률이 높았다. 제품선택 단계에서는 ‘색채, 조명, 재료, 평면의 구조변경’에서 ‘전문업체에 의뢰’가 높게 나타났고, 특히 ‘재료, 평면의 구조변경’에서는 ‘전문업체 의뢰’의 비율이 더 큰 차이를 보였으며, ‘가구, 패브릭, 소품’은 ‘본인이 직접’에 대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설치 및 시공에서는 모든 요소에서 ‘전문업체 의뢰’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색채, 조명, 재료, 가구, 평면의 구조변경’에서는 방법에 따른 비율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고 ‘패브릭, 소품’의 요소에서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able 9>.

G3유형은 컨셉 및 계획단계에서는 ‘재료, 평면의 구조변경’요소에서는 ‘전문업체에 의뢰’했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색채, 조명, 가구, 패브릭, 소품’은 ‘본인이 직접’의 비율이 높았다. 제품선택 단계에서는 ‘색채, 가구, 패브릭, 소품’의 경우 ‘본인이 직접’했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조명, 재료, 평면의 구조’는 ‘전문업체 의뢰’가 많았다. 설치 및 시공 단계에서는 ‘소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요소에서 ‘본인이 직접’했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Table 10>.

Table 9. Execution Method of G2

Categories		Concept & Planning	Product Selection	Installation & Construction
Color	Self	13(46.4)	12(42.9)	3(10.7)
	Contractor	15(53.6)	16(57.1)	25(89.3)
	Total	28(100.0)	28(100.0)	28(100.0)
Lighting	Self	9(36.0)	10(40.0)	3(11.5)
	Contractor	16(64.0)	15(60.0)	23(88.5)
	Total	25(100.0)	25(100.0)	26(100.0)
Materials	Self	11(31.4)	10(27.8)	1(2.9)
	Contractor	24(68.6)	26(72.2)	34(97.1)
	Total	35(100.0)	36(100.0)	35(100.0)
Furniture	Self	32(78.0)	30(75.0)	9(22.5)
	Contractor	9(22.0)	10(25.0)	31(77.5)
	Total	41(100.0)	40(100.0)	40(100.0)
Fabric	Self	16(66.7)	14(58.3)	11(45.8)
	Contractor	8(33.3)	10(41.7)	13(54.2)
	Total	24(100.0)	24(100.0)	24(100.0)
Accessories	Self	10(62.5)	9(56.3)	7(43.8)
	Contractor	6(37.5)	7(43.8)	9(56.3)
	Total	16(100.0)	16(100.0)	16(100.0)
Floor plan	Self	0(0.0)	1(10.0)	1(10.0)
	Contractor	9(100.0)	9(90.0)	9(90.0)
	Total	9(100.0)	10(100.0)	10(100.0)

f(%)

Table 10. Execution Method of G3

Categories		Concept & Planning	Product Selection	Installation & Construction
Color	Self	22(61.1)	20(55.6)	3(8.3)
	Contractor	14(38.9)	16(44.4)	33(91.7)
	Total	36(100.0)	36(100.0)	36(100.0)
Lighting	Self	15(68.2)	10(45.5)	3(13.6)
	Contractor	7(31.8)	12(54.5)	19(86.4)
	Total	22(100.0)	22(100.0)	22(100.0)
Materials	Self	14(35.0)	17(42.5)	2(5.0)
	Contractor	26(65.0)	23(57.5)	38(95.0)
	Total	40(100.0)	40(100.0)	40(100.0)
Furniture	Self	33(86.8)	33(84.6)	13(33.3)
	Contractor	5(13.2)	6(15.4)	26(66.7)
	Total	38(100.0)	39(100.0)	39(100.0)
Fabric	Self	18(78.3)	19(82.6)	8(34.8)
	Contractor	5(21.7)	4(17.4)	15(65.2)
	Total	23(100.0)	23(100.0)	23(100.0)
Accessories	Self	13(92.9)	12(85.7)	8(57.1)
	Contractor	1(7.1)	2(14.3)	6(42.9)
	Total	14(100.0)	14(100.0)	14(100.0)
Floor plan	Self	4(26.7)	2(14.3)	2(13.3)
	Contractor	11(73.3)	12(85.7)	13(86.7)
	Total	15(100.0)	14(100.0)	15(100.0)

f(%)

G4유형은 컨셉 및 계획 단계에서는 ‘색채, 조명, 재료’에서 ‘전문업체에 의뢰’했다는 응답이 많았지만 ‘본인이 직접’과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며 ‘가구, 패브릭, 소품’의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했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제품선택 단계에서는 ‘색채, 조명, 재료, 평면의 구조변경’에서 ‘전문업체 의뢰’비율이 높았고, ‘가구, 패브릭, 소품’은 ‘본인이 직접’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설치 및 시공

Table 11. Execution Method of G4

Categories		Concept & Planning	Product Selection	Installation & Construction
Color	Self	8(42.1)	6(31.6)	3(15.8)
	Contractor	11(57.9)	13(68.4)	16(84.2)
	Total	19(100.0)	19(100.0)	19(100.0)
Lighting	Self	5(41.7)	4(33.3)	1(8.3)
	Contractor	7(58.3)	8(66.7)	11(91.7)
	Total	12(100.0)	12(100.0)	12(100.0)
Materials	Self	17(48.6)	16(45.7)	5(14.7)
	Contractor	18(51.4)	19(54.3)	29(85.3)
	Total	35(100.0)	35(100.0)	34(100.0)
Furniture	Self	43(93.5)	41(89.1)	21(45.7)
	Contractor	3(6.5)	5(10.9)	25(54.3)
	Total	46(100.0)	46(100.0)	46(100.0)
Fabric	Self	21(77.8)	22(81.5)	13(46.4)
	Contractor	6(22.2)	5(18.5)	15(53.6)
	Total	27(100.0)	27(100.0)	28(100.0)
Accessories	Self	16(94.1)	17(100.0)	13(76.5)
	Contractor	1(5.9)	0(0.0)	4(23.5)
	Total	17(100.0)	17(100.0)	17(100.0)
Floor plan	Self	4(50.0)	2(25.0)	1(12.5)
	Contractor	4(50.0)	6(75.0)	7(87.5)
	Total	8(100.0)	8(100.0)	8(100.0)

f(%)

단계에서는 다른 유형과 마찬가지로 ‘소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요소에서 ‘전문업체 의뢰’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Table 11>.

이상의 결과를 정리해 보면 실내코디네이션을 시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라이프스타일 유형별로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컨셉 및 계획단계나 제품 선택단계에서는 건축계획적 요소에 속하는 ‘평면의 구조변경’과 실내구성요소에 속하는 ‘색채, 재료, 조명’ 등은 ‘전문업체에 의뢰’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장식적 요소인 ‘가구, 패브릭, 소품’의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하는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설치 및 시공 단계에서는 ‘소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요소를 ‘전문업체에 의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일반 거주자들이 가구나 소품, 패브릭 등의 요소에 대한 정보를 얻어 코디네이션을 계획하고 제품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많으나, 모든 요소를 전체적인 컨셉에 맞추어 계획하거나 제품을 구매 및 설치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다.

실내코디네이션 시행 시 제품 선택의 방법을 라이프스타일 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Table 12>와 같이 나타났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는 아니지만 유형별로 비율의 차이를 보인다. G1, G2유형에서는 ‘인테리어전문가와 상담으로(41.7, 40.0%)’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G3, G4유형에서는 ‘평상시 자신의 취향대로(38.9, 44.3%)’에 대한 응답이 다른 유형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는 고급스러움을 추구하는 G1유형이나 표현하기를 좋아하는 G2유형은 전문가의 의견을중요시하며, 실리적인 G3유형이나 개성을 추구하는 G4유형은 자신에게 맞는 디자인을 선택하려는 욕구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Table 12. Methods of Product Selection

Categories	G1	G2	G3	G4
Design magazines/Books	7(9.7)	12(17.1)	6(8.3)	12(17.1)
Consulting of designer	30(41.7)	28(40.0)	24(33.3)	17(24.3)
Apartment modelhouse	7(9.7)	7(10.0)	3(4.2)	2(2.9)
Personal taste	21(29.2)	14(20.0)	28(38.9)	31(44.3)
Opinion of surroundings	7(9.7)	9(12.9)	11(15.3)	8(11.4)
Total	72(100.0)	70(100.0)	72(100.0)	70(100.0)

$\chi^2=20.089(n.s), df=12$

f(%), \*p<.05 \*\*p<.01 \*\*\*p<.001

### V. 결 론

본 연구는 공동주택 거주자들의 실내코디네이션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먼저 문헌고찰을 통해 실내코디네이션의 개념과 구성요소를 도출하고 거주자들의 생활특성과파악을 위한 도구로서 라이프스타일에 대해 논의하였다. 실증조사연구에서는 공동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라이프스타일 유형과 유형별 실내코디네이션에 대한 경험과 요구를 분석하여 그 특성을 파악하였으며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 공동주택 거주자들의 라이프스타일을 파악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라이프스타일 구성요인으로 ‘고급지향요인’, ‘심미추구요인’, ‘자기표현추구요인’, ‘정보지향요인’, ‘실리추구요인’의 5가지요인이 파악되었고, 이에 따라 거주자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은 4집단으로 분류되었다. 각 유형의 특성을 살펴보면, G1유형은 ‘고급지향요인’과 ‘심미추구요인’에 의해서, G2유형은 ‘정보지향요인’과 ‘자기표현요인’, 그리고 G3유형은 ‘실리추구요인’, G4유형은 ‘자기표현요인’과 ‘심미추구요인’에 의해 특징지어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웰빙고급형으로 명명한 G1유형은 실내분위기 변화와 실내코디네이션에 적극적이며 예술품 및 고급스런 분위기를 선호하는 특징이 있으나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실내코디네이션의 시행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면을 보인다.

표현형으로 명명한 G2유형은 평상시 자기개발을 위한 노력을 하고 인터넷 활용도가 높으며 공간의 편안함이나 기능보다는 유행을 추구하며 남에게 보여주기를 좋아하는 과시적 성향을 띠고 있다. 실내코디네이션의 시행에 있어서 다른 유형에 비해 다소 적극적으로 공간분위기를 바꾸며 가구, 소품 등 장식적요소의 교체 비율이 높다. 또한 유행이나 자기 개성표현을 위해 실내코디네이션을 하는 편이다.

실리형으로 명명한 G3유형은 고급스런 분위기나 유행을 추구하기보다는 생활의 편리함이나 실리적인 생활을 추구하는 집단으로 실내장식에 관심은 있으나 비용이나 경제적 여건 등으로 자주 시행하지 않는다.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실용적인 공간 활용이나 기능적인 것의 보완 등의 목적으로 실내코디네이션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가구나 소품, 패브릭 등의 장식적 요소보다는 재료, 색채 등의 교체가 높은 편이다. 또한 시행하는 주기

가 길며 실내코디네이션을 본인이 직접 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났다.

개성형으로 명명한 G4유형은 인터넷을 통한 정보추구 활용도가 높은 편이며, 개성표현이나 유행에 관심이 많아 주택에 있어 편리함이나 실리적인 면보다는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고자 하는 유형으로 다른 집단에 비해 실내코디네이션에 관심이 많지만 비용이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는 편이다.

이렇게 라이프스타일의 유형은 다양하게 구분되나, 실제 시행의 과정에서는 본인의 스타일에 맞추어 직접 계획을 하거나 제품선택을 하는 요소가 제한적이고 설치 및 시공도 전문 업체에만 의존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서 보다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실내코디네이션 방법의 연구 및 제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생활수준의 향상과 거주자들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변화로 인해 실내공간에 대한 중요성과 가치가 부각되고 다양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는, 일반인들의 실내코디네이션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어 실제 공간에서 생활하는 거주자 측면에서의 실내코디네이션 방법 제안 및 시행 방안의 모색이 요구되고 있다. 처음에 전체적으로 계획되었던 실내공간도 거주자들의 생활환경, 생활패턴, 라이프사이클 등에 따라 교체, 수정, 변경 등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변형된다. 이러한 공간을 시작 단계의 컨셉 작업에서부터 최종의 장식소품까지 조화와 조정의 통합작업을 통해 미적, 기능적 목적에 맞고 거주자의 생활에 적합한 쾌적한 환경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실내코디네이션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앞으로도 보다 심층적이고 구체적인 거주자들의 실내코디네이션 특성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 조사대상 및 조사지역의 범위를 넓혀 거주자들의 다양한 개성과 주거공간의 특성을 반영하고 실내코디네이션에 대한 지침을 마련할 수 있는 폭 넓은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REFERENCES

1. 채서일(1992). 사회과학 조사방법론. 학현사, 서울.
2. Chung, S. & Kim, H. (2002). Theoretical study on lifestyle research. *Consumption Culture Study*, 5(2), 107-128.
3. Hong, W. (2009). *A study on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lifestyle according to the housing preference*.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4. Kim, H. (2008). *A study on the space using behavior of the kitchen according to apartment residents' lifestyle*. Master's thesis, Pusan National University, Busan.
5. Kim, J. & Han, J. (2011). Analysis on the Research Trend in Interior Coordination. *KIID Spring Conference Proceedings*, 13(1), 215-219
6. Kim, S. (2009). *A study of present housing coordinate through analysing the classification of interior design*. Master's thesis, Sangmyung University, Seoul.
7. Lee, C. (2003). *Housing plan which copes with the change of a city life style*. Master's thesis, Hongik University,

- Seoul.
8. Lee, Y., Ahn, J. & Jang, S. (1993) The relationship between general life style and housing life style. *Yonsei Collection of Treatises*, 29(1), 309-337.
  9. Lee, Y. & Shin, H. (1985). Present and preferred design characteristics of major interior furnishings in the Jamsil apartment area of Gangdong-gu.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23(4), 123-141.
  10. Park, H. (2001). *Preference of interior design according to life style*.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11. Park, H. (2003). Interior coordination. *KIID Spring Conference Proceedings*, 5(5), 18-25.
  12. Park, S.(2001). *A study on the housing needs model for the apartment unit plan*. Doctoral dissert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Busan.
  13. Park, W. (2005). *A study on the unit display of model-house applying to the trend analysis*. Master's thesis, Kookmin University, Seoul.
  14. Park, Y., Shin, I., Han, J. & Hwang, Y. (1994). A study on the life style and the interior preference of urban residents in apartments. *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5(1), 17-27 .
  15. Yoo, Y. & Lee, S. (2011). A study on the analysis of interior coordination trend by semiology - oriented process - focused on the analysis of determinant theme of exhibition.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Interior Design*, 20(1), 51-60.

---

접수일(2012. 3. 22)

수정일(1차: 2012. 5. 31)

게재확정일(2012. 6. 14)